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중계, 잇단 흥분 해설에 폭소 · 비난(종합)

송고시간 I 2008-08-12 15:50





9 12 15 25 34 36 +







강종훈 기자 기자페이지

<올림픽 중계, 잇단 흥분 해설에 폭소 · 비난>(종합)SBS 김봉조, 심권호 해설위원 등 화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강종훈 기자 = "펠프스! 힘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박태환이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수영 역사를 잇따라 새롭게 쓰는 등 대표팀의 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중 계하는 방송사 캐스터와 해설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해 폭소와 비난을 낳고 있다.



SBS 김봉조 해설위원은 12일 오전 진행된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을 중계하다 "태환아! 힘내자~"라며 사석에서 하는 듯한 코멘트를 하더니, 경쟁자인 "펠프스!"를 외치다 흥분한 나머지 뒷말을 잇지 못하다 갑 자기 "힘내라!"라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김 해설위원은 이에 앞서 10일 400m 결승전을 중계하던 중에 는 아예 이렇다할 말을 몇마디 하지 못하고 감격에 겨워 괴성만 연신 토해냈고, 함께 진행하던 배기완 캐스터는 "울어도 좋아 요!"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MBC 박석기 해설위원은 10일 박태환이 선두를 치고 나서자 "세계 신기록!"을 연발하며 잘못된 해설을 하기도 했다. 나중에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KBS 안창남 해설위원 역시 10일 경기에서는 '안전빵'이라는 부 적절한 용어를 구사하기도 했고, 흥분한 나머지 "매운 고추가 매운 법"이라는 실언을 했다.

12일 열린 레슬링 경기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심권호 SBS 해설위원이 도마에 올랐다.

심 위원은 그레코로만형 55kg급 박은철과 60kg급 정지현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연방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밀어, 조금만 더 밀어야 해"라고 코치가 선수에게 지시하는 듯 고성과 반말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그는 경기 도중 박은철이 상대선수에게 점수를 허용하자 "이씨"라고 외쳤으며 정지현의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바 보아"라고 소리치는 등 흥분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막말 해설"이라는 시청자의 비난을 샀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





<`시차 없는 올림픽'...직장인들 눈치 '시청'>

박태환 자유형 200m 결승전 시청률 39.8%

<박태환 중계, 잇단 흥분 해설에 폭소만발>

<올림픽> 중국인 'TV 앞으로'...관광업계 타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2 15:50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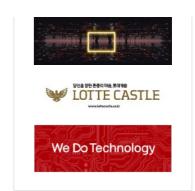
▶ 01:18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나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문 결국 우크라에

링컨 등 후보군"

▶ 02:22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8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